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연재!

대통령도 반한 대한민국 최고의 맛

대통령의 맛 지

강대석·이춘성·최영기 지음

국내 최초로 소개

역대 대통령
맛있는 밥



전주시립원산도서관



EM252124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외식집, 을지로 양곱창집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마지막 오찬, 소복식당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번갈아 찾은 전주 성미당

21세기북스

KJ신서 2651

✓대통령도 반한 대한민국 최고의 맛 대통령의 맛집

1판 1쇄 인쇄 2010년 08월 10일

1판 2쇄 발행 2010년 09월 01일

지은이 강대석, 이춘성, 최영기 그림 오금택 펴낸이 김영곤 펴낸곳 (주)북이십일 21세기북스

출판컨텐츠사업부문장 정성진 생활문화팀장 김선미 기획편집 김미경

영업마케팅본부장 최창규 영업·마케팅 김용환 이경희 김보미 허정민

출판등록 2000년 5월 6일 제10-1965호

주소 (우413-75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단지 518-3

대표전화 031-955-2100 팩스 031-955-2151

이메일 book21@book21.co.kr 홈페이지 www.book21.com 커뮤니티 cafe.naver.com/21cbook

값 13,500원

ISBN 978-89-509-2604-5 13980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주)북이십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목차

저자의 말 12

1. 충북 단양, 대강막걸리 _17

황석영, “막걸리는 한국 사람을 닮았어.” 19 대통령 체면에도 불구하고 연거푸 다섯 잔 마셔 22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24 “대통령이 보내주신 인삼으로 술 담갔죠.” 26

2. 서울 종로 구기동, 옛날민속집 _33

대통령 입맛? “누구보다 자신 있어요!” 36 청와대 경호실 “짜지 않게 해달라.” 38 직접 담근 매실청과 된장이 보배 39 YS만의 특별메뉴 42 너무 청결해 수돗물 값만 한 달에 300만 원 43

3. 제주도 진미명가, 다금바리회_49

여행지에서 의 바가지, 피할 수는 없다 50 남북 정상과 소련 대통령까지 반한 맛 53 이
순자 여사의 회갑상과 장미꽃 예순 송이 55 입소문 타고 평양까지 간 다금바리 59 매
운탕은 필수, 예약은 기본! 61 4대째 가업을 이을 외아들, 조리학과 마치고 현장서 맹훈
련 중! 63

4. 부산 금정산성, 산성막걸리_67

국내 최초 향토민속주 '금정막걸리' 71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마을의 은인이지." 72
얼굴로 직접 누룩방 온도 측정해 74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비밀리에 막걸리 '수송' 76
"기술만 가르쳐 달라." vs "원하는 대로 줄게." 77

5. 서울 내자동 신안촌, 전라도식 홍어요리_83

영원한 그리움으로 남은 고 김대중 대통령 86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의 맛이 난
다"며 좋아해 87 홍어는 푸짐하게 여러 사람과 나눠 먹어야 제맛! 88 대통령이 인정
한 '귀여운 사장님' 91 한 달 채소 값만 1000만 원 92 홍어 냄새 못 견뎌 떠난 종업원
도 많아 94

6. 서울 중구 양미옥, 양곱창_99

양미옥은 온 가족과 함께 101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했죠.” 104 쫄깃함과 신선도 만
점의 비결은 얼음물 106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용의자까지 맞춰 108 ‘사장아내’까
지 직접 챙겨준 이희호 여사 109 경호원들의 주방 점검에 “대통령 안 받겠다.” 거절 111
맛집의 한류바람, 일본 진출 위해 7년 전 ‘양미옥’ 현지 상표등록 112

7. 제주도 유리네, 은갈치_117

제주 여행의 기본은 비행기 예약 시간부터 120 식당 예약만 잘해도 면세점 쇼핑이 여유
롭다 12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감동시킨 ‘어머니의 손맛’ 123 제주산 재료만 쓰는 게
맛의 비결 125 은갈치만 하루 300토막 128

8. 서울 을지로 하동관, 곶탕_135

70여 년을 함께한 ‘고향’을 떠나다 137 곶탕과 설렁탕의 차이를 아십니까? 139 깍두
기, 주연배우 뽑치는 조연 142 헬기로 곶탕 배달시킨 고 박정희 전 대통령 144 ‘장군의
아들’, 처음이자 마지막 외상 손님 145 “저녁에는 오지 마세요.” 146

9. 경북 문경새재 새재할매집, 약돌돼지 양념구이 _151

모든 '뜨내기 손님'이 '단골 손님'으로 바뀌는 새재할매집의 비밀 153 KAL기 폭파범 김
현희를 울린 고향의 맛 154 “놀면 손에 꽃 피냐?” 156 하루에 150근, 400~500판 팔리는
약돌돼지 양념구이 157 황 할머니 집에선 장관 부인도 모두 새댁! 160 정성을 다하
는 인간사랑의 손맛 161 머루주에 반하고 문경새재에 취하다 162 6.5킬로미터의 발
걸음 163

10. 충남 예산 소복식당, 소복갈비 _169

“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맛있다고 직접 싸가셨죠.” 170 “부드러운 암소 갈비만 사용
합니다.” 173 입맛 돋우는 향내, 갈비 타는 소리 174 까다로운 입맛에도 꼭 맞는 소복
식당의 양념갈비 176 원기충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스페셜 메뉴, 사골 갈비국수
178 20분만 가면 내 옆의 그 사람이 그리워져요 180

11. 전북 전주 성미당, 전주비빔밥 _185

세계적인 양반 음식, 전주비빔밥 188 스파게티 가격에만 친절한(?) 한국인 190 비빔밥
한 그릇의 정성에 감동하다 191 맛의 비밀은 사골 국물로 지은 ‘밥’ 193 네 명의 전·현
직 대통령이 다녀간 맛집 중의 맛집 196 따로따로지만 어우러짐이 있다 197

12. 전북 전주 홍도주막, 주전자막걸리 _203

막걸리만 시키면 모든 안주 OK! 206 홍도주막의 안주는 진화 중 209 박리다매가 장사의 비결 210 전주에 가면 홍도주막은 필수! 214 청와대까지 전해진 맛 소문 216

13. 별미 중의 별미, 전주콩나물국밥 _221

갈대가 들려주는 파도소리 224 콩나물 따라 국밥 맛도 각양각색 226 대통령 방문에 직원 신원 조회까지 228 대통령 조깅 때문에 뒤바뀐 운명 229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면박 준 육쟁이 할매 230 전주 남부시장의 40년 터줏대감 '현대옥' 232 손님이 별 때처럼 '앵앵' 물리는 '앵이집' 234

14. 서울 연남동 향원, 정통중화요리 _239

세계 어디를 가도 있는 맛집은? 241 한국의 '리틀 차이나타운', 연남동 242 대통령 며느리들이 제자로 들어오다 244 오감만족 '삼선누룽지탕' 247 대만 인간문화제가 스승 249

15. 전남 해남 천일식당, 한우 떡갈비 한정식_255

대한민국의 시작이자 끝, 해남 땅끝마을 256 장갑차 타고 나타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팁으로 10원 쥐 259 대박 비결은 직접 담근 '조선간장' 260 하루에 갈비 160근, 월 매
출 1억 원 262 명물 숯불 석쇠 떡갈비와 '밥도둑' 젓갈 263 떡갈비를 손수 배달 주문
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265 절경 두륜산, 케이블카로 10분 등정 267 대흥사, 한걸
음에 마음이 맑아지고 268

16. 전남 목포, 영란횃집_273

목포에서 영란횃집을 모르면 간첩 274 민어는 활어회보다 선어회가 제맛! 275 '바
다의 소(牛)' 민어 277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랑한 보양식 민어회 279 설탕까지
유기농만 고집하는 노처녀 사장님 280 미혼 사장님 "이제는 설랍니다." 281 '목포의
눈물' 기념비를 품고 있는 유달산 282

17. 광주 일식집, 가매_287

무등산 옛길 따라 절경 서석대까지 288 여자친구가 하이힐을 신었다면 이 코스가 제
격! 291 '고향의 맛'이 그리워 찾고 또 찾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293 DJ가 드신단 말
에 "우리 집 말고 저쪽 집으로 가보라." 294 'DJ 특선코스 요리 맛있다'며 2인분 포
장해 가 295 다급히 뛰어온 경호원, 주방장의 굴비마저 가져가 296 고액 연봉과 명

성보다 나만의 요리가 최고의 비결 298 “일식을 우리 맛의 명품 한식으로 재탄생시키고 싶어.” 300

18. 포항의 명물 새포항물회, 물회와 막회 _ 305

호랑이 꼬리에 달린 ‘상생의 손’ 306 포항의 명물, 죽도시장과 과메기 309 만 원 주고 산 꿈에 ‘대통령 방문’ 311 어부의 음식, 물회 313 고추장만 한 해에 3천근 담가 316 3,000인분 주문에 싱싱함 위해 200인분만 317

19. 부산 공동어시장, 구내식당의 고등어 3층사 _ 323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재래시장 324 소주의 ‘절친’ 낚따루를 아시나요? 326 ‘도둑 갈매기’의 천국 공동어시장 328 귀신 같은 어부들의 고기잡이가 싱싱함의 비결 329 어부들이 아내 데려와 “비결 가르쳐 달라.” 330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아쉽습니다.” 332 영화 같은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해안길 드라이브를 334 대한팔경 ‘달맞이길 월출’ 장관 335

20. 충북 제천의 약선요리 한정식집, 동궁 _ 339

웰빙 식단은 자연으로의 회귀 340 조상들의 지혜, 민간요법 343 유럽풍 실내 장식이 돋보이는 약선 한정식집 '동궁' 345 맛 레시피 하나에 4천만 원 347 이명박 대통령 “지역 특색 살린 음식에 힘 실어주고 싶어.” 349 보약으로 착각한 손님, 효험 없다고 항의도 351 식후경엔 삼한 시대의 인공 저수지 의림지 따라 걸어보자. 352

